

# '역마진 해소' 한전 흑자 전망에 주가 25% 상승

###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주주가치 제고' 항목 추가 영향 김동철 한전 사장, 회사 밸류업 동참...3000만원 상당 자사주 매입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난해 실적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고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안정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한전 주가가 25% 이상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3일 지난해 4분기 실적과 함께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증권업계에서는 한전이 지난해 4분기 약 1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5월부터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를 넘어섬에 막대한 누적적자의 원인 중 하나였던 역마진 구조를 해소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누적기준 역마진 규모가 축소되며 재정 안정화의 물꼬를 텄다. 이 같은 한전은 재정상태가 나아지면서, 주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한전 주가는 지난해 11월 초 1만6000원대에 머물러있었는데, 지난달 초 종가 기준 1만9000원대를 기록했고, 지난 19일 종가 기준으로 2만 3200원까지 올라섬에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주가가 무려 25%나 뛰었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서 자산소각이나 자사주 매입, 배당 등 주주 입장에서 호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주가가 올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다른 주가 상승 배경에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



관 경영평가' 내 세부 기준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항목을 추가한다는 결정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명령한 것으로, 공기업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적극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김동철(사진) 한전 사장은 최대 3000만원의 한전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경영진이 주식 매입을 통해 자사 가치를 올리고 오는 26일 정부가 상장사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자기 주식 취득이 일반 직원까지 확대될 경우 주가는 더욱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WM센터장은 "한전의 시총은 15조원으로, 기업 규모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계다가 주식의 60% 가량이 정부·정부가 소유로 묶여 있어, 만약 2만 명이 넘는 한전 임직원들이 주식 매입에 나설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전은 지난해 연간 실적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난 3년간 축적된 누적적자 해소 및 재무구조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조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만 13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5조84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에는 32조6552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현재 누적적자는 45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전이 지난해 3분기 흑자전환해 1조 996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4분기까지 약 1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2분기 연속 흑자로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한전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8조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은 적자일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업계의 견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지난해 하반기 흑자 전환해 3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호재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막대한 부채 및 발생이자로 인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발생해야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aT, 3월 시행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준비 현장 점검

### 거제 하나로마트 등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2024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준비현장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난 18일 현장 점검에 나서 거제시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하나로마트를 방문 및 점검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지원과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산 육류·채소·과일 등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김춘진 aT 사장은 "최근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식품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며, 신선하고 영양이 높은 식품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 직면했다"며 "이번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격차에 따른 영양 섭취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하



지난 18일 김춘진 aT 사장이 통영시 소재 한 굴 양식업체를 찾아 수산물 수출 및 해외 시장개척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T 제공)

나로마트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통영시 소재 굴 양식업체인 덕성수산을 방문해 굴을 하나씩 날개로 키워내는 '개체굴' 양식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 및 해외 시장개척 방안을 모색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한전KPS, 한전기술과 감사업무 지원 협약

### 감사기구 인력 상호 지원 등

한전KPS는 최근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과 감사 전문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와 윤상일 한전기술 상임감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들의 협력체계 구축 및 청렴 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자체 감사기구 인력 상호지원 ▲내부 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교차감사 등을 통한 감사기법,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자체 감사기구 내실화 및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관 간 지속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왼쪽)와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오른쪽)가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적인 소통 및 협업을 통해 내부통제 우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배수개선사업 26지구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전남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선정된 올해 배수개선사업에 전남지역의 26지구가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역 내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50ha 이상 농경지에 배수로와 배수장 등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함으로써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배수개선사업 대상은 총 154지구로, 신규 착수지구는 58지구다. 신규 착수

지구 중 전남지역 11지구가 새로이 선정됐다. 기존 배수개선사업 대상이었던 전남 15지구와 신규 착수지구를 더해 전남지역에서는 총 26지구가 배수개선사업의 대상이 됐다. 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남도도와 지역주민 등과 함께 영농이 많은 지역의 상황을 알리고, 배수개선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고 전했다. 배수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대가 낮아 배수펌프를 물을 빼내야 하는 지역에 배수장

을 두고,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에는 배수문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타작물 재배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본부는 또 올해 기본조사로 선정된 지구들 역시 내년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조영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지역은 최근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침수 피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관련 시설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확대해 농촌지역 곳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 켄텍, 남도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진행

한국에너지공단(켄텍)은 전남지역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남도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켄텍 에너지공과부 1·2학년 학생 11명은 겨울방학 동안 7차례에 걸쳐 화순과 장흥, 강진, 해남 나주 등지의 사적지를 찾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켄텍은 참여 학생들에게 탐방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다산 정약용 평전', '한국사 속의 나주', '리더러면 정조처럼' 등 인문학 서적 80권을

참고교재로 지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화순 운주사 와불을 보면서 미륵사상이 왜 삼국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는지 생각했고,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민주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 대해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을 담당할 부경호 켄텍 교수는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인문소양을 함양하고, 나주와 전남도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남도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 분야만이 아닌 곳에서도 시야를 넓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